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식에 따른 영재 특성 비교

김 혜 정

인천대학교

한 기 순

인천대학교

최근 영재교육의 핫 이슈 중 하나는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급격한 증가이다. 영재교육의 양적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단위학교 영재학급에서 선발되고 있는 학생들의 영재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식에 따른 영재 특성(지능, 창의성,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비교하여 현재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다 유용한 단위학교 영재학급 교육대상자 선발방법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각기 다른 방식(선발시험, 혼합, 성취도, 희망)으로 선발된 단위학교 영재학급 4학년, 6학년 학생 402명,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6학년 학생 50명, 일반 학생 4학년, 6학년 학생 142명을 포함하여 총 594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능, 창의성,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 검사를 실시하고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는 영재 특성에 있어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와 차이가 없었으며 일반학생들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다양한 선발방식(선발시험, 혼합, 성취도, 희망)에 따라 영재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희망에 의한 선발은 지능, 창의성,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 전반에서 다른 선발방식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영재선발방식으로서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선발방식 개선 맥락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주제어: 영재선발, 단위학교 영재학급, 지능, 창의성, 동기, 자기조절 학습전략

I. 서 론

최근 영재교육의 가장 큰 이슈와 논란 중 하나는 영재교육 대상자의 급격한 확대이다.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의 통과이후 0.01% 미만의 극소수 최상위 영재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영재교육이 2012년에는 전국 기준 1.76%로 영재교육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이재분,

2012), 시도에 따라 3.0% 이상까지 급격하게 확대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급격한 확대는 2010년부터 각 지역에서 정책적으로 시작한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개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소수정예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초기 인식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타고난 잠재력 계발을 위하여 보다 다수의 잠재적 영재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근본 취지를 찾아볼 수 있다.

세계 주요 나라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영재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영재교육의 대상을 주에 따라 상위 5%에서 20%까지로 확대하고 있다(구자역 외, 2002). 이스라엘 역시 모든 아동들이 그들의 잠재력과 재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데 영재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매년 초등학교 2, 3, 4학년층을 대상으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상위 5%, 상위 3%, 극소수의 최상위 수준 영재 등으로 차별화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신동, 이정규, 박춘성, 2009).

이러한 세계 영재교육의 주요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개인적인 능력과 잠재력 계발에 초점을 두어 영재교육 대상자 확대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영재교육대상자, 영재교육 기관, 예산 확대 등 양적성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1년 제2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에 따르면 영재학급 수는 전국적으로 3,521개 학급으로 늘어났으며, 2007년 전체의 0.59%였던 영재교육 대상자가 2011년 1.59%, 2012년 1.76%로 확대되었다(강호원, 2012; 이재분, 2012). 이러한 수치는 시도에 따라 다소 상이한 상황으로 한 예로 수도권의 한 교육청은 영재교육 대상자를 2008년 전체 학생의 0.71%, 2010년 1.49%에서 2012년 3.33%로 확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13년 영재교육 대상자를 전체 학생 수 대비 4.62%로 확대 운영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이 운영안에 따라 이 교육청 소속의 각 초등학교에서는 4,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형태의 단위학교 영재학급을 설치하고 영재교육 대상 학생을 선발해 운영해야 한다. 최근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개설은 중학교로까지 확대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방과 후 학교 형태의 단위학교 영재학급 설치 및 운영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영재교육의 양적성장이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단위학교 영재학급에서 선발되는 영재학생들의 영재성 수준이나 부실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다. 배진성(2010)은 초등영재교육이 단위학교 영재학급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김현미(2012)는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여 방과 후 학교 형태의 단위학교 영재학급에 관한 초등 교사의 인식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두 연구 모두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운영 방식, 개선방향 등 운영 실태와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발전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단위학교별 영재학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으로 단위학교 영재 판별도구와 선발방법의 개선을 공통사항으로 제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진성(2010)의 연구에서는 교사, 학부모 모두 학문적성 검사 및 영재성 검사를 영재선발 방법으로 선호하였으며 앞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선발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하였다. 김현미(2012)의 연구에서도 초등 영재교사들은 ‘선발 시험을 위한 척도나 기준 등의 자료 보급이 시급하다’는 문항을 설문 전체 56개의 문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방과 후 학교 형태의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확대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된 영재성 검사를 실시하거나, 상대적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다단계식 영재 선발방식을 적용하거나, 선발일정과 방식을 지역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과 다르게 대부분의 일선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선발은 영재담당 교사의 과도한 업무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선발에서의 전문성, 타당성 및 이를 위한 지원시스템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단위학교 학교장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그 지역 학부모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열의나 인식부족이 더해질 경우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선발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들이 단위학교 영재학급 수료(예정) 학생에 한해 상위 영재기관으로의 추천을 하고 있어 단위학교 영재학급에서의 영재 선발은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선발방식과 이를 통해 선발되고 있는 영재학생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현재 각 단위학교 영재학급에서는 학교마다 자체적인 선발 방법을 마련하여 각자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으나 단위학교 영재학급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선발방법의 타당성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부재하며, 특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발방식에 따른 영재들의 주요한 특성을 비교한 연구는 더더욱 부재한 실정이다.

영재 선발방법에 따른 수학영재의 특성을 비교한 강희영(2012)의 연구에서는 관찰·추천에 의한 방식이 창의적 영역과 실천적 영역(문제해결력, 의사결정 능력 및 리더십)이 뛰어난 영재를 가려내는 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하였으며 인지적 영역에서는 지필고사에 의해 선발된 집단과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강희영(2012)의 연구는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 산하 지역공동 수학영재학급을 대상으로 관찰·추천에 의한 방식이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적합한 방법인지 확인하는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단위학교 영재학급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선발방법에 따른 수학영재의 특성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선발방법에 따른 영재의 주요 특성을 비교하여 현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탐색하여 영재교육의 목적에 맞는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 적합한 선발방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단위학교 영재학급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선발방식에 따라 영재들의 주요 특성인 지능, 창의성,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 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할 영재의 주요특성으로 지능, 창의성,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선정한 이유는 Renzulli(1978)의 세 고리 영재성 개념에 기인하며, 동시에 지능, 창의성,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이 영재와 일반학생을 구분하는 가장 주요한 특성이라는 선행연구들에(박성익 외, 2003) 근거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발방식에 따라 단위학교 영재학급 학생

들의 영재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탐색하는 동시에, 단위학교 영재학급 학생들의 주요 영재적 특성을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및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영재 대상자의 급격한 확대와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단위학교 영재학급 학생들의 영재성 수준에 대한 탐색도 더불어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단위학교 영재학급 학생들의 영재성이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소속 영재들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일반아동들과 비교하여 영재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김현미, 2012; 배진성, 2010).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탐색하여 영재교육의 목적에 맞는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는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 및 일반학생과 주요 영재의 특성(지능, 창의성,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식에 따라 주요 영재의 특성(지능, 창의성,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식에 따른 영재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시 교육청에 속해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활용되고 있는 선발방식 조사를 위해 A시 교육청에 속해 있는 공립학교 204개교 중 학교홈페이지에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공고가 게시되어있는 126개교의 선발방식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126개 학교 중 71개 학교(56.3%)가 수학·과학·창의성 문항으로 이루어진 영재선발시험을 통해 단위학교 영재학급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이는 전체 선발 방법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다. 또한 면접, 교사 체크리스트, 자기소개서, 수상실적, 과제수행관찰 등의 비시험 방법과 선발시험이나 학업성취도평가 등의 시험 방법을 혼합하여 선발한 학교가 28개교(22.2%)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비시험과 시험 방식의 비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였는가 등의 세부사항은 거의 제시되어있지 않았다. 그 밖에 학교 자체 성취도평가와 진단평가 점수로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학교가 12개교(9.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이러한 절차 없이 학생들의 희망이나 자기추천에 의해 단위학교 영재학급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절차가 있었으나 대상인원을 모두 채우지 못해 본인의 희망에 의해 영재를 선발하는 학교도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현재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은 학교에 따라 자체적인 ‘영재선발시험’에 의한 선발, ‘영재선발시험과 관찰 등 비시험을 혼합한 방식’에 의한 선발, 별도의 영재선발시험이나 관찰·추천 등의 절차 없이 학교의 기존 ‘성취도’ 점수, 즉 성적에 의거한 선발,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의한 선발 방식이 혼재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가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 및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영재의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기 위해(연구문제 1), 단위학교 영재학급 6학년 학생 194명과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소속 영재 6학년 학생 50명, 일반학급 6학년 학생 79명이 참여하였다.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에는 4학년 과정이 없어 연구 문제 1에는 6학년 학생들의 데이터만을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선발방식에 따른 영재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연구문제 2) 본 연구에서 분석에 포함된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식은 위에서 설명한 ‘영재선발시험’, ‘혼합(영재선발시험+관찰-면접 등 비시험)’, ‘성취도’, ‘희망’의 네 가지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방식으로 집단을 나누고 집단마다 3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총 12개 학교에서 4학년, 6학년 학생 402명을 단위학교 영재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비교집단으로 일반학급 학생 역시 3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4학년, 6학년 학생 142명으로 구성하였다. 참여한 일반학급 3개교는 본 연구에서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선발방식(선발시험 1개교, 혼합 1개교, 성취도 1개교) 조사를 위해 참여한 학교 중에서 선정되었다. 따라서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해 영재 및 일반학생 총 544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집단 간 사회경제적 수준에 의한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학교 선정에 있어 동일 교육청 관내 유사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학교를 선정하였다. 선발방식에 따른 영재 특성 비교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의 세부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선발방식에 따른 영재 특성 비교를 위한 연구 대상

	단위학교 영재학급					일반학급	총계
	선발시험	혼합	성취도	희망	계		
4학년	59	58	57	34	208	63	271
6학년	46	56	56	36	194	79	273
총계	105	114	113	70	402	142	544

2. 검사 도구

가. 지능검사

본 연구에서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로 Raven 지능검사(Raven Progressive Matrices; RPM)를 사용하였다. RPM은 1930년대부터 J. Raven과 J. C. Raven에 의해 개발된 지능검사로 비언어적인 검사이며 도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가능하며 만 5세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에 따라 Colored Progressive Matrices Test(CPM), Standard Progressive Matrices Test(SPM), Avanced Progressive Matrices Test(APM)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연령에 맞는 SPM 검사를 사용하였다. SPM은 Set A부터 E의 다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12문항씩 총 60 문항으로, 검사 제한 시간은 30분이었다. 지능 점수는 총 60개 문항의 정답 수를 지능 검사 점수로 하였다.

나. 창의성 검사

본 연구에서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Wallach과 Kogan(1965)의 확산적 사고검사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한다. Wallach과 Kogan의 확산적 사고검사는 ‘예 듣기’, ‘대안 찾기’, ‘같은 점 찾기’, ‘패턴의 의미 찾기’, ‘선의 의미 찾기’의 5개의 하위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대안 찾기’, ‘같은 점 찾기’, ‘선의 의미 찾기’의 3개의 하위 검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유창성(아이디어의 수)과 융통성(아이디어 종류) 및 독창성(아이디어의 희귀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창성은 Wallach과 Kogan이 제시한 바대로 각 자극에 대한 반응들에 대하여 빈도를 구하고 전체 반응자의 5%이하가 반응한 것을 독특한 반응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본 검사에서의 독창성 점수는 전체 594명의 5% 이하인 29번 이하의 빈도를 가지는 반응을 독특한 반응으로 채점하여 29번 이하로 언급된 반응에는 1점, 30번 이상의 반응에는 0점으로 하여 산출하였다.

다.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 검사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동기요인과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Pintrich와 DeGroot(1990)이 사용한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MSLQ)를 임윤경(2011)이 사용한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 검사지는 동기적 신념(자기효능감, 내재적가치, 시험불안), 자기조절적 학습전략(인지전략 사용, 자기조절)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 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임윤경(2011)의 연구에서 각 요인별 신뢰도계수인 Cronbach α 는 .74~.94이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각 요인별 신뢰도는 .68~.92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3이었다.

3. 분석방법

연구문제 1과 2를 해결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for variance; one-way ANOVA)을 사용하였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é를 사용하여 사후 검정하였다. 단, 연구문제 2의 선방방식에 따른 창의성의 비교는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사후 검정으로 Games-Howell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는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 일반학생과 영재의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가.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와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 일반학생의 지능 차이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와 지역교육청 영재, 일반학생의 지능 차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을 독립변수로 하고, 지능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 일반학생 집단에서 지능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6.66, p<.001$).

<표 2> 집단에 따른 지능 차이 및 사후분석 결과

	단위학교 영재(a) (N=194)	지역교육청 영재(b) (N=50)	일반학생(c) (N=79)	F	Scheffé
	M (SD)	M (SD)	M (SD)		
지능	51.38 (4.25)	52.18 (4.61)	48.27 (4.91)	16.66***	a,b>c

*** $p<.001$

※ Scheffé a:단위학교 영재, b:지역교육청 영재, c:일반학생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교육청 영재집단의 지능 점수가 평균 52.18로 가장 높았으며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 51.38, 일반학생 48.27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Scheffé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와 지역교육청 소속 영재의 지능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와 지역교육청 영재 지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일반학생들의 지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학생들이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소속 영재들에 비하여 영재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세간의 우려(김현미, 2012)와 달리 단위학교 영재학급 학생들이 지역교육청 영재들과 지적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일반학생들과 구분되는 우수한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와 지역교육청 영재, 일반학생의 창의성 차이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와 지역교육청 영재, 일반학생 간의 창의성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 지역교육청 영재, 일반학생 집단에 따라 창의성 하위요인인 유창성 ($F=5.72, p<.01$), 융통성($F=6.29, p<.01$), 독창성($F=10.55,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집단에 따른 창의성 차이 및 사후 분석 결과

	단위학교 영재(a) (N=194)	지역교육청 영재(b) (N=50)	일반학생(c) (N=79)	F	Scheffé
	M (SD)	M (SD)	M (SD)		
유창성	31.65 (14.18)	32.28 (14.29)	25.91 (10.86)	5.72**	a,b>c
융통성	29.89 (12.43)	30.44 (12.49)	24.57 (9.93)	6.29**	a,b>c
독창성	9.47 (7.23)	10.40 (6.12)	5.92 (3.98)	10.55***	a,b>c

** $p<.01$, *** $p<.001$

※ Scheffé a:단위학교 영재, b:지역교육청 영재, c:일반학생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의성 하위 세 개 요인 모두 지역교육청 영재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일반학생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 집단 간 차이분석을 위해 *Scheffe* 방법을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와 지역교육청 영재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일반학생들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과 마찬가지로 단위학교 영재학급 학생들은 창의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지역교육청 소속 영재들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와 지역교육청 영재, 일반학생의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 전략의 차이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와 지역교육청 영재, 일반학생의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 차이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분석결과도 지능 및 창의성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표 4> 참조). 분석결과를 보면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 지역교육청 영재, 일반학생 집단에 따라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F=17.77, p<.001$), 내재적가치($F=7.60, p<.01$), 인지전략사용($F=7.09, p<.01$), 자기조절($F=11.76,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험불안($F=2.66, p>.05$)은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 지역교육청 영재, 일반학생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의 하위 요인 5개 중 자기효능감, 자기조절에서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들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내재적가치, 인지전략사용에서 지역교육청 영재들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왔다. 반면 시험불안은 일반학생들이 가장 높게 나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와 지역교육청 영재, 일반학생 집단에 따라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Scheffé* 방법을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단위학교 영재와 지역교육청 영재간의 자기효능감, 내재적가치, 시험불안, 인지전략사용, 자기조절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두 영재집단의 자기효능감, 내재적가치, 인지전략사용, 자기조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일반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시험불안 요인은 단위학교 영재, 지역교육청 영재, 일반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값에서만 일반학생들이 단위학교 영재나 지역교육청 영재들에 비해 높았다.

<표 4> 집단에 따른 동기 및 자기조절학습전략 차이 및 사후분석 결과

종속 변인	단위학교 영재	지역교육청 영재	일반학생	F	Scheffé
	(a) (N=194)	(b) (N=50)	(c) (N=79)		
	M (SD)	M (SD)	M (SD)		
자기효능감	3.99 (.80)	3.85 (.68)	3.38 (.79)	17.77***	a,b>c
내재적가치	4.07 (.63)	4.10 (.59)	3.76 (.65)	7.60**	a,b>c
시험 불안	2.69 (1.18)	2.77 (1.17)	3.04 (1.09)	2.66	
인지전략사용	3.47 (.58)	3.51 (.65)	3.18 (.67)	7.09**	a,b>c
자기조절	3.59 (.55)	3.52 (.67)	3.23 (.53)	11.76***	a,b>c

** $p<.01$, *** $p<.001$

2.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식에 따라 영재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가. 선발방식에 따른 집단 간 지능 차이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법에 따라 지능 차이를 알아보고자 4학년, 6학년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 402명을 대상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일반학급 학생 142명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함께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식에 따른 지능 차이 및 사후분석 결과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식				일반 (N=142)	F	Scheffe
	선발시험 (a) (N=105)	혼합 (b) (N=114)	성취도 (c) (N=113)	희망 (d) (N=70)			
	M (SD)	M (SD)	M (SD)	M (SD)			
지능	49.33 (5.59)	49.39 (5.43)	49.26 (5.08)	47.97 (4.42)	46.52 (6.41)	6.64***	a,b,c>e

*** $p < .001$

※ Scheffe a:선발시험, b:혼합, c:성취도, d:희망, e:일반

분석결과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법 4개의 집단 중 혼합방법으로 선발된 단위학교 영재의 지능 점수 평균이 49.3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선발시험 49.33, 성취도 49.26, 희망 47.97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생의 지능 점수 평균은 46.52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 값이 6.64, 유의확률은 .000으로서 집단 간 지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 기인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선발방식에 따른 지능 점수의 사후비교분석 결과 선발시험, 혼합, 성취도, 희망 방법 간 지능 점수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일반학생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각 선발방식과 비교한 결과 선발시험, 혼합방식, 성취도 집단은 비교집단인 일반학생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영재선발에 있어 희망방식은 비교집단인 일반학생 집단과 지능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 선발방식에 따른 집단 간 창의성 차이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법에 따른 창의성의 차이 분석과 사후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법에 따른 4개 집단 중 혼합방법으로 선발된 집단이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희망방법으로 선발된 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모든 창의성 하위요인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에 기인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의성의 경우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Games-Howell을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선발방

식에 따른 창의성 점수의 사후비교분석 결과, 유창성과 융통성의 경우 혼합방식은 희망방식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선발시험, 혼합, 성취도 방식을 통해 선발된 영재들은 비교집단인 일반학생들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독창성의 경우 선발시험 방식은 희망 방식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혼합 방식도 성취도 및 희망 방식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선발시험, 혼합, 성취도 방식은 비교집단인 일반학생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희망 방식으로 선발된 영재학생의 독창성은 비교집단인 일반학생들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6>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식에 따른 창의성 차이 및 사후분석 결과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식				일반 (N=142) M (SD)	F	Games- Howell
	선발시험 (a) (N=105)	혼합 (b) (N=114)	성취도 (c) (N=113)	희망 (d) (N=70)			
	M (SD)	M (SD)	M (SD)	M (SD)			
유창성	34.11 (18.68)	34.12 (13.63)	32.12 (12.60)	28.09 (11.58)	25.49 (10.44)	9.62***	b>d a, b, c>e
융통성	31.77 (15.56)	31.90 (12.11)	30.28 (10.91)	26.70 (10.65)	24.02 (9.49)	10.38***	b>d a, b, c>e
독창성	11.13 (8.76)	11.40 (6.64)	9.08 (5.62)	8.01 (5.35)	6.12 (4.34)	15.20***	a>d b>c, d a, b, c>e

***p<.001

※ Games-Howell a:선발시험, b:혼합, c:성취도, d:희망, e:일반

다. 선발방식에 따른 집단 간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 차이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법에 따른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 차이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법에 따른 4개 집단 중 희망 방식으로 선발된 집단이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선발시험, 혼합, 성취도 방법으로 선발된 영재학생들에 비해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후분석이 실시되었다. 사후비교분석 결과 하위변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자기효능감, 내재적가치, 인지전략사용, 자기조절에서 선발시험, 혼합, 성취도 방식이 일반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기효능감을 제외하고 희망방식과 일반학생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자기효능감에서는 희망 방식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일반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시험불안 변인과 관련해서는 일반학생과 성취도로 선발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취도 집단은 학교의 성적, 성취도 결과 등에 의해 영재로 선발된 집단인만큼 가장 낮은 시험불안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선발방식에 따른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 차이 및 사후분석 결과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식				일반 (N=142)	F	Scheffé
	선발시험 (a) (N=105)	혼합 (b) (N=114)	성취도 (c) (N=113)	희망 (d) (N=70)			
	M (SD)	M (SD)	M (SD)	M (SD)			
자기 효능감	4.16 (.86)	4.15 (.83)	3.84 (.77)	3.73 (.55)	3.21 (.73)	30.15***	a, b>d a, b, c, d>e
내재적 가치	4.04 (.62)	4.24 (.55)	4.24 (.58)	3.92 (.65)	3.77 (.64)	13.67***	b, c>d a, b, c>e
시험 불안	2.81 (1.15)	2.75 (1.15)	2.42 (1.16)	2.64 (1.18)	2.99 (1.15)	4.04**	c<e
인지전략 사용	3.55 (.62)	3.57 (.57)	3.46 (.57)	3.36 (.60)	3.13 (.66)	11.89***	a, b, c>e
자기 조절	3.61 (.54)	3.62 (.54)	3.73 (.56)	3.47 (.55)	3.29 (.56)	11.67***	a, b, c>e

** $p<.01$, *** $p<.001$

※ Scheffé: a:선발시험, b:혼합, c:성취도, d:희망, e:일반

IV. 논의 및 제언

방과 후 학교 형태의 단위학교 영재학급 설치 및 운영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영재 교육의 양적성장이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단위학교 영재학급에서 선발되는 영재학생들의 영재성 수준이나 개별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러한 현장의 이슈에 나름의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제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운영되면서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들의 영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김현미, 2012). 영재와 일반학생의 영재성을 비교하는 연구들에서 영재는 일반학생에 비해 높은 지능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성근, 2007; 김성희, 2010; 노신자, 2002; 문병상, 2000; 서주연, 2004; 유형기, 2009; 임윤경, 2011). 하지만 기존 연구는 대부분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영재와 일반학생을 비교하는 연구로 단위학교 영재들의 영재성에 관한 현장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를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 및 일반학생들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들의 영재성 수준 및 영재적 특성을 밝히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 결과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는 일반학생 보다 높은 지능, 창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

위학교 영재학급에서 선발된 영재 역시 일반학생들과 유의하게 구별되는 영재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시키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영재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능, 창의성,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 등의 변인은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와 일반학생을 유의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관련 변인과 도구가 이후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선발 도구로 사용 가능함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법 실태를 위해 살펴본 결과 A시 교육청 소속 126개 초등학교의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법실태조사 결과 126개 학교 중 71개 학교(56.3%)가 수학·과학·창의성 문항으로 이루어진 영재선발시험을 통해 영재학급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선발을 위한 별도의 전형 없이 학교 자체 성취도 평가결과와 진단평가 점수로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학교도 12개교(9.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발시험 등 지필평가에 의한 영재 선발은 창의성과 인성요소를 확인하기 힘들며 사교육을 통해 수동적인 지식과 요령을 익힌 학생들이 영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류지영, 정현철, 2010; 한기순, 이정용, 2011).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 판별이 등장하였으며 상위 영재교육기관에서는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선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일부 단위학교에서도 관찰·추천의 일환으로 면접, 담임체크리스트, 수업관찰 등의 방식을 선발시험등과 혼합하여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28개교, 22.1%), 여전히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은 영재선발 시험만을 통해 단위학교 영재학급 학생을 선발하고 있거나 학교 성취도 점수에 의한 선발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선발시험 방식이 짧은 시간 안에 학생의 인지적인 능력을 객관적인 수치로 드러낼 수 있고 영재선발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며 선발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필평가에 의한 방식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생의 인성과 창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필평가에 의한 영재선발시험이나 성취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영재를 선발하는 단위학교 영재학급은 선발방식에서 적절한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연구결과 선발시험, 성취도 방법에 의해 선발된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의 지능, 창의성,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발시험은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선발을 위해 수학, 과학, 창의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여 이를 선발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며, 성취도는 중간, 기말 고사 등 정규 교육과정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나 진단평가를 선발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영재선발을 위해 별도로 출제되는 시험과 기존 학업성취도평가와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영재선발을 위해 출제된 영재선발시험이 학업성취도평가와 비교하여 변별력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성취도 방법 집단과 영재선발시험 집단에 영재성 차이가 없는 것은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학업우수자 집단과 차이가 없다는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학생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계발시키는 교육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우월반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최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중심으로 잠재적 능력을 지닌

진정한 영재를 발굴하기 위해 장기간의 관찰에 의한 영재 선발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일부 단위학교 영재학급에서도 영재 선발에 면접, 교사 체크리스트, 자기 소개서, 과제수행관찰 등 지필평가 이외의 방법을 일정비율을 반영하고 있다.

넷째,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이러한 비시험 방법을 선발시험 등 지필평가와 혼합하여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를 선발한 혼합 집단과 선발시험 한 가지 방법으로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를 선발한 경우, 그리고 성취도로 영재를 선발한 집단 간에 지능, 창의성,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에서 그다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 선발에 사용되고 있는 혼합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각 학교에서 비시험 방법을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 선발에 사용하고 있지만 영재 선발에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영재 선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 지필평가에 의해 선발된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들과 영재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면접이나 교사 체크리스트, 과제수행관찰 등은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교사의 경험과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이인호, 한기순, 2009). 창의적인 영재와 지적인 영재를 구별한 Renzulli(1986)은 많은 교사들이 행동이 바르고 책임감 있는 학생을 영재로 판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창의력이 뛰어난 영재들이 면접, 과제수행 단계를 거치면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면접이나 교사 체크리스트, 과제수행관찰 등의 방법은 객관적인 관찰도구의 개발과 평가 기준 마련이 요구되며 영재 선발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등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관찰·추천의 일환으로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 선발에 사용되고 있는 비시험 방법의 반영 비율을 높여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 선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사항들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만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 선발에서도 관찰·추천 취지에 부합되는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법에 따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혼합에 의한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들이 지능, 창의성,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내재적 가치, 인지전략사용)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비시험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교화한다면 시험과 비시험을 혼합한 방법이 영재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보다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는 단일판별보다 복합판별이 더 효과적이라는 김연주(2012), 안성연(1996)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 선발이 지필고사에 의한 영재 선발보다 창의적 영역과 실천적 영역이 뛰어난 영재를 가려내는 데 적합하다는 강희영(2012)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법에 따른 네 가지 영재 집단과 일반학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선발시험, 혼합, 성취도 방법은 일반학생과 지능, 창의성,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 모든 하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희망’에 의해 선발된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는 일반학생과 지능, 창의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의 하위 요인 중 자기 효능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도 일반학생과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여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재정적 여건에 의하여 사전에 교육대상 학생들의 규모를 정해 두고 인원수에 일치될 때까지 나머지 학생들을 배제하거나 부족한 학생들을 보충하는 방식의 영재선발 문제점과 관련이 있다(이재호, 류지영, 진석연, 2011). 정해진 인원수에 맞추어 단위학교 영재학급을 구성할 경우 영재성이 없는 학생이 영재로 선발되어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 경우 학생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사회성이나 인성 등 정서적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이재호, 류지영, 진석연, 2011). 본 연구의 결과는 희망 혹은 자기추천이나 학부모추천에만 의지한 영재선발은 지능, 창의성 등 영재적 특성을 소유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영재학급 인원수 충원 등을 이유로 본인의 희망만으로 단위학교 영재학급 대상 영재를 선발하는 것은 영재교육의 정체성 유지 및 질적성장을 위해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특정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단위학교 영재, 지역교육청 영재,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법이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모든 선발방법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의 일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의 단위학교 영재, 지역교육청 영재,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확대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법과의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비시험 방법만을 선발방법으로 사용한 학교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법에 따른 영재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단위학교 영재학급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각 선발방법을 통해 합격한 영재들과 불합격한 학생들의 영재 특성을 비교하여 차이를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초등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방식에 따른 영재 특성을 비교하여 현재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보다 확대 운영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단위학교 영재학급 선발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강호원 (2012).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11년도 추진실적 점검결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 4. 25.

강희영 (2012). 영재 선발방법에 따른 수학영재의 특성 비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구자역, 김홍원, 박성익, 안미숙, 이순주, 조석희 (2002). 동서양 주요 국가들의 영재교육. 서울: 문음사.

권성근 (2007). 5, 6학년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특성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원대

학교.

- 김성희 (2010). **초등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지능과 지혜와 행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김연주 (2012). **역동적 평가를 활용한 미성취 과학영재의 판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현미 (2012). **방과 후 학교 형태의 단위학교 영재학급에 관한 인식 연구: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노신자 (2002). **영재와 일반아동의 자기조절학습과 창의적 성격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류지영, 정현철 (2010). 영재학급 대상자 선발을 위한 관찰·추천 영재판별모형 개발 연구. **영재교육연구**, 20(1), 257-287.
- 문병상 (2000). 영재와 평재간의 학업적 자기조절 차이. **초등교육연구**, 18(1), 181-197.
- 배진성 (2010). **단위학교별 영재학급에 의한 영재교육 확대 방안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서주연 (2004). **영재와 평재 간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학습전략 사용상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안성연 (1996). **영재의 단일판별 대 복합 판별 과정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유형기 (2009). **초등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지능, 창의성, 과흥분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이신동, 이정규, 박춘성 (2009). **최신영재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이인호, 한기순 (2009).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교사 추천의 효용성 분석. **영재교육연구**, 19(2), 381-404.
- 이재분 (2012). **영재교육 10년, 회고와 전망**. 교육과학기술부 심포지움 기초발표 자료 (2012.11.28)
- 이재호, 류지영, 진석언 (2011). 미래사회 영재 판별 방법에 관한 연구. **정보교육학회논문지**, 15(2), 307-317
- 이지현 (2011). **초등 저학년 고도 영재들의 인지적, 비인지적 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임윤경 (2011).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지적능력에 대한 신념을 예측하는 변인 탐색: 지능, 동기 및 자기조절 학습전략,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한기순, 이정용 (2011). 영재교사들이 지각하는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의 방향, 중요도, 실행수준 분석. **영재교육연구**, 21(1), 107-122.
- Pintrich, P. R., & De 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33-40.
- Renzulli, J. S. (1986). The three-ring conception of giftedness: A developmental model for

creativity productivity. In R. J. Sternberg & J. E. Davidson (Eds.), *Conceptions of Giftedness*.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llach, M. A., & Kogan, N (1965). *Modes of thinking young children: A study of the creativity-intelligence distinction*. NY: Holt, Rinehart & Winston.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Gifted Students'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Diverse Identification Methods for the Gifted Education Program at Each Elementary School

Hae-Jung Kim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i-Soon Ha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 more useful identification method by comparing diverse selection approaches for the gifted education programs at the each elementary school. Diverse selection methods examined in the study include 'written examinations', 'mixed evaluation', 'achievement test scores', and 'self-recommendation'. For the study, each identification group's gifted students' characteristics, such as intelligence, creativity,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were compare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a total of 594 gifted and normal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tudents in each gifted education class and gifted students who belong to the regional gifted education programs which are considered higher level of gifted education programs. Whil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of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in all aspects examined, such as intelligence, creativity,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In addition and most importantly, diverse identification method utilized in each school showed differences in gifted students' characteristics. Especially, students who were selected through the self-recommendation showed significantly lower intelligence, creativity,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related to the identification and education for the gifted at each elementary school were discussed in depth.

Key Words: Identification, Gifted education class, Intelligence, Creativity, Motivation, learning strategies

1차 원고접수:	2013년	4월	1일
수정원고접수:	2013년	4월	21일
최종게재결정:	2013년	4월	21일